

“하루야 건강해” 미혼모 자녀 ‘특별한 돌잔치’

‘아름다운 사회 함께 만들어요’

337 봉선화 봉사단

광주 20-40대 자영업자 봉사단체 42명 기부금 모아 첫 생일 축하 떡·사진 촬영·의상 등 외부 후원도 2023년 결성...시설 등에 나눔

“오늘 내리는 봄비처럼 하루가 더 건강하게 자라길 바랍니다.”

봄비가 내린 25일 오전 11시께 광주 광산구 대 한사회복지회 ‘편한집’에 첫 생일은 맞은 하루를 축하하기 위한 이들이 속속 도착했다.

하루는 한부모 복지시설인 편한집에서 생활하고 있으며, 이날 가족 대신 지역 자영업자들이 한데 모여 돌잔치를 열었다.

진행 맡은 윤지현 MC는 “봄비가 내리는 날은 좋은 날이라는 말이 있다”면서 하루의 건강한 성장을 기원했고, 축하 인사(?)들의 소개를 이어갔다.

이후 하루의 성장 영상이 상영되자 곳곳에선 웃음이 번졌고, 축하 노래가 울려 퍼지는 가운데 하루를 안은 엄마가 입장해 함께 촛불을 켰다. 순간 돌잔치 공간은 박수와 환호로 가득 찼다.

돌잡이에서는 하루가 실과 연필, 마이크 등을 뒤로하고 5만 원권을 집어 현상이 또 한번 웃음 바다가 됐다.

이날 하루의 돌잔치는 광주 지역 젊은 자영업



광주 지역 20-40대 자영업자들로 구성된 '337 봉선화 봉사단' 회원들이 25일 오전 광산구 대한사회복지회 '편한집'에서 미혼모 자녀의 돌잔치를 열어 첫 생일을 함께 축하하고 있다. /윤찬웅 기자

자 모임인 '337 봉선화 봉사단'이 마련했다.

‘봉사를 선도하는 화목한 사람들’의 줄임말인 ‘봉선화’는 2023년 20-40대 자영업자 42명이 참여해 결성했으며, 매월 기부금을 모아 보육시설과 요양원에 생필품을 전달하는 등 나눔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하루의 돌잔치는 “아이 엄마가 초대할 가족이나 지인이 없다”는 사연을 접한 뒤 추진했다. 회원들의 기부금에 외부 후원도 더해졌다.

돌떡은 ‘슈가롱 광주떡케이크’가, 돌상 연출은 박재한 무지개풍선 대표가, 사진 촬영은 조광운 노는아이작가가 맡았다.

아기 의상은 이진기 르네셀 대표와 정시은씨가, 한복 대여는 순천 ‘수한복대여’, 음식과 디저트는 이은주 아리아테이블 대표가 손을 보았다.

돌잔치 중간에는 김화진 봉선화 봉사단 대표와 이혜선 편한집 원장이 준비한 선물도 전달됐다.

이혜선 원장은 “하루를 키우는 데 많은 사람들이 돕고 있다”며 “앞으로도 건강하게 자라길 바란다”고 말했다.

육아가 처음인 하루의 엄마를 곁에서 도왔던 이명옥 돌봄 교사는 “하루가 아프기도 했지만 잘 견뎠다”며 “외롭지 않게 자랐으면 좋겠다”고 애기하며 눈시울을 붉혔다. 이 말을 들은

하루의 엄마도 눈물을 보이며 고개를 떨궜다.

하루 엄마는 “많은 분들이 외워 정말 감사하다”며 “도움을 받은 만큼 아이를 잘 키우겠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행사 말미에는 참석자들이 “하루야 사랑해”를 외치며 기념촬영을 했다.

김화진 봉선화 봉사단 대표는 “미혼모가 홀로 아이를 양육하는 일이 쉽지 않은 만큼 이번 돌잔치가 작게나마 힘이 됐으면 한다”며 “앞으로도 보육시설과 요양원 등 도움이 필요한 곳에 나눔을 이어가고, 편한집과의 인연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윤찬웅 기자

신안철교 재가설 교통대책 ‘우회선로’ 가닥

국토부, 북구에 교각 신설 따른

서방천 수위 영향 분석 주문

서방천 범람을 막기 위한 신안철교 재가설 공사 관련, 정부가 임시 우회선로 설치를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25일 광주 북구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정부

세종청사에서 국토교통부 주관 ‘신안철교 재가설 관계기관 3차 간담회’가 열렸다.

간담회에는 국토부 철도국과 기후변화 대응부서, 북구, 철도연구원, 민간 전문가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앞서 철도노조 호남지방본부는 신안철교 재가설에 따른 광주역 열차 운행 전면 중단에 대한 국토부의 입장이 나올 것으로 전망했

나, 이렇다 할 결론은 나오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대신, 국토부는 임시 우회선로 설치로 새롭게 들어설 교각이 서방천 수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분석해 달라고 북구에 요청했다.

이는 공사 기간 광주역 열차 통행은 전면 중단하는 대신 임시 우회선로를 설치해 운행을 유지해야 한다는 철도노조의 주장과 맥을 같

이 한다.

북구는 교각 신설에 따른 서방천 수위 변화를 분석한 이후 국토부와 함께 하천기본계획을 재 수립하고 다음 달 중 관계 기관과 관련 논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한편 철도노조는 그동안 시민 이동권 보장을 이유로 임시선로 설치 필요성을 제기해 왔다.

최근 노조가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광주역 이용객의 90% 이상이 열차 운행 중단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응답자 1천9명 중 28.8%는 임시 우회선로 설치 후 운행 지속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윤찬웅 기자

“아파트 층간소음 차단” 광산구, ‘견본 세대’ 도입

광주 광산구가 아파트 층간소음 갈등을 뿌리 뽑기 위해 시공 전 차단 성능을 의무적으로 검증하는 ‘바닥충격음 견본 세대’를 도입한다.

25일 광산구에 따르면 지역 내 주택 유형 중 아파트 비율이 86%에 육박함에 따라 민간 공동 주택 건설 현장에 공사 전 ‘바닥충격음 견본 세

대’를 미리 지어 층간소음 차단 성능을 입증해 야만 전체 세대 시공을 허용하는 ‘선(先) 검증 후(後) 시공’ 제도를 추진한다.

현행 강화된 규정상 신축 아파트는 콘크리트 바닥 판(슬래브) 두께 210mm 이상, 경량 및 중량 충격음 49dB(데시벨) 이하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광산구는 측정을 통해 바닥충격음 차단 효과가 미달할 경우 본 시공 전 시공법을 변경하거나 보완하도록 건설사와 협의하고, 준공 후 사용감사 전에도 성능 검사 기관과 함께 사후 관리를 이어갈 방침이다. /이육근 기자

오늘의 날씨

☀해돋이 06:28 해질 18:49 🌧달름 11:35 달짐 02:05

●광주·전남 날씨

광주	구름조금	6/21	장성	구름조금	4/21
목포	구름조금	6/15	보성	구름조금	4/20
여수	구름조금	8/19	함평	구름조금	4/17
나주	구름조금	4/20	순천	구름조금	6/21
완도	구름조금	7/21	영광	구름조금	4/16
구례	구름조금	5/22	진도	구름조금	5/15
강진	구름조금	5/20	흑산도	구름조금	6/13
해남	구름조금	4/19	고흥	구름조금	4/22
광양	구름조금	8/22	담양	구름조금	4/21

●전국 날씨



●바다 날씨

위치	오전/파고(m)	오후/파고(m)
서해 앞바다	0.5-0.5	0.5-0.5
남부 앞바다(북)	0.5-1.0	0.5-1.0
남부 앞바다(남)	0.5-1.0	0.5-1.0
남해 앞바다	0.5-0.5	0.5-0.5
서부 앞바다(동)	0.5-1.5	0.5-1.5
서부 앞바다(서)	0.5-1.5	0.5-1.5

●물때

지역	만조	간조	만조	간조	만조	간조	
목포	07:48	13:01	여수	02:27	08:45	03:13	10:22
	19:42	--:--		14:27	21:02	14:57	22:10

●생활정보지수

니들이 70 **세차 70**
 감기 조심해요 세차하기 좋은날
빨래 70 **운동 60**
 실외건조 좋아요 운동 후 체온 유의

●주간 날씨

27일(금)	28일(토)	29일(일)
☀(7/21) 맑음	☀(7/21) 맑음	☀(7/20) 구름조금
30일(월)	31일(화)	4월1일(수)
☁(10/19) 구름비	☀(9/19) 구름조금	☀(7/18) 맑음

▶ 날씨안내 : 국번없이 131

광주매일신문 전통시장활성화 연중 캠페인

“전통시장이 살아야 지역경제가 일어납니다”

서민들의 삶의 애환이 깃든 '전통시장'이 장기화한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다양한 편리한 유통시설이 들어서면서 '전통시장'은 점점 설 자리를 잃어갑니다. 각 자치단체에서는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한 다양한 시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광주매일신문은 시·도민들의 지혜를 모아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연중 캠페인을 펼칠 것입니다.

풍성한 먹거리와 훈훈한 정이 있는 화순 고인돌 전통시장

◎ 장이 서는 날 ◎ 매월 3, 8일로 끝나는 날

맛과 멋이 어우러진 능주 전통시장

◎ 장이 서는 날 ◎ 매월 5, 10일로 끝나는 날

주최 : **광주매일신문·광주매일 TV** 후원 : **화순군 Hwasun-gun** 광고문의 : 062)650-2099